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노장의 부활 … 황제의 굴욕

‘환갑 골퍼’ 왓슨 4언더파 3R선두 브리티시 오픈 우즈, 5오버파 컷 오프 최대 충격

〈톰 왓슨〉

60세 노장 톰 왓슨(미국)이 무려 142년 된 기록 경신을 눈앞에 뒀다. 반면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컷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왓슨은 19일(이하 한국시간) 스코틀랜드 에어셔의 턴베리 링크스 에일사코스(파70·7천204야드)에서 열린 제138회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4개로 1타를 잃었지만 4언더파 206타로 단독 선두에 나섰다. 1라운드 공동 2위, 2라운드 공동 선두에 이어 3라운드에서 드디어 혼자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린 왓슨은 이 대회 역대 최고령 우승 기록인 1867년 톰 모리스(스코틀랜드)의 46세99일을 바꿔 놓을 기세다.

이 대회뿐 아니라 메이저대회를 통틀어 최고령 우승인 1968년 US오픈 줄리어스 보로스(미국)의 48세 기록도 마찬가지다. 메이저대회가 아닌 정규 투어 대회에서도 미국과 유럽을 통틀어 최고령 우승 기록은 1965년 그레이터 그린스보로오픈에서 52세로 우승한 샘 스니드(미국)가 갖고 있다. 15번 홀(파3)까지 3타를 잃고 있던 왓슨은 16번(파4)과 17번 홀(파5) 연속 버디로 이를 만회하며 공동 2위 매튜 고긴(호주), 로스 피셔(잉글랜드)에 1타 차 리드를 잡으며 1977년 이후 32년 만에 타이틀 탈환을 노리게 됐다.

14번 홀(파4)에서 6m 파 퍼트를 넣어 위기를 넘긴 왓슨은 그러나 17번 홀에서는 시도한 6m 이글 퍼트가 들어가지 않아 2타 차로 달아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장면이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39승, 챔피언스투어에서도 12승을 거둔 왓슨은 브리티시오픈에서 5회 정상에 오른 것을 비롯해 메이저대회 8승의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이다.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와 레티프 구센(남아공)이 2언더파 208타로 공동 4위를 달렸고 짐 퓨릭, 스튜어트 싱크(이상 미국)가 이들에 1타 뒤진 공동 6위권을 형성했다. 아시아 선수로는 통차이 자이디(태국)가 이븐파 210타, 공동 8위에 올라 마지막 날 역전 우승 가능성을 남겨뒀다.

한편 개인 통산 15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노렸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컷 통과에 실패했다.

우즈는 지난 18일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는 3개에 그치고 더블보기 2개, 보기 3개를 적어내 4오버파 74타를 쳤다. 중간합계 5오버파 145타의 스코어 카드를 제출한 우즈는 컷 기준 4오버파 144타에 1타가 모자란 공동 74위에 머물러 짐을 싸야 했다. 우즈가 프로로 전향하고 나서 메이저대회에서 컷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우즈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픔에 싸여있던 2006년 US오픈 때 컷오프된 적이 있다.

우즈는 “실수 뒤에 또 실수가 나왔다. 몇 차례 좋지 않은 티샷과 아이언샷이 나왔다”며 “좋은 경기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우즈의 컷 탈락이 첫번째 충격이라면 이틀째 톰 왓슨(미국)의 선전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최경주·앤서니 김도 탈락

최경주(39)와 앤서니 김(24·이상 나이키골프)은 나란히 6오버파 146타로 2라운드를 마쳐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관심을 끌었던 이시카와 료(일본)도 6오버파 146타에 그쳐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윤석민 ‘화려한 귀환’

8이닝 7K 무실점 쾌투 KIA, 한화에 5대0 승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 51일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KIA는 19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8회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한 윤석민의 활약에 힘입어 5-0으로 2연승을 달렸다.

전날 나지완·최희섭의 홈런포 등 장단 16안타로 14-4의 승리를 거두었던 KIA는 19일 경기에서는 ‘철벽마운드’를 앞세워 승리를 챙겼다.

윤석민의 노련한 투구가 돋보였다.

어깨 근육이 뭉치며 재활군에 머물렀던 윤석민은 지난 6월17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이후 한 달여 만에 마운드에 올랐지만 초반 위기를 넘긴 뒤 안정된 투구를 선보이며 한화 타선을 봉쇄했다.

윤석민은 2회말 이범호·이영우의 연속안타로 무사 1·2루의 위기를 맞았으나 송광민을 중견수 플라이로 요리한 뒤, 신경현에게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실점 위기를 넘겼다.

이어진 3회초 장성호의 솔로포가 KIA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선두타자로 나온 장성호는 안영명의 직구를 받아 우측 담장을 넘기며 선취점을 기록했다. 지난 5월14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솔로홈런을 기록했던 장성호는 대전 구장에서 한 달여 만에 홈런포를 재가동했다. 시즌 3호.

이현곤과 안치홍의 연속 안타로 만들어진 1사 2·3루, 나지완의 타구가 우중간에 떨어지면서 두 명의 주자가 모두 홈을 밟아 3-0이 됐다.

팀의 선취점을 기록한 장성호는 7회에도 우전안타를 치고 출루해 추가 득점의 발판을 놨다. 이어진 무사 1루에서 김상훈의 2루타에 이어 이현곤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1점을 도망간 KIA는 8회초 이종범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태며 5-0으로 한화를 제압했다.

8회까지 마운드를 지킨 윤석민은 4피안타 2사사구 무실점의 깔끔한 투구로 팀의 2연승을 이끌었다. 삼진은 7개를 잡아냈다.

5월29일 LG 트윈스 봉중근과의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두었던 윤석민은 51일 만에 승리를 추가하며 시즌 3승째를 기록했다.

한편 전날 41일만의 복귀전에서 9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첫타석에서 2루타를 기록했던 김원섭은 이날 안치홍과 함께 테이블 세터를 구성했지만, 안타를 기록하는 데는 실패했다.

18일 대타로 출전해 101일 만에 그라운드로 돌아온 이용규는 이날 8회 2사 1루에서 홍세완의 대타로 들어서 좌전안타를 기록하며 복귀 이후 첫 안타를 신고했다. /대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동성·화순고 화랑대기 16강행

광주 진흥고의 화랑기 2연패가 무산됐다.

진흥고는 19일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제61회 화랑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원주고와의 16강 경기에서 1-2로 역전패했다.

지난 대회 우승팀 진흥고는 6회 2사 3루에서 김정훈의 내야안타로 선취점을 기록했지만 8회 동점을 허용한 뒤, 9회 2사 1루에서 원주고 염진우에게 2루타를 맞으며 1-2로 역전패당했다.

화순고와 광주 동성고는 18일 열린 대회 1회전에서 각각 휘문고와 부산고를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화순고는 난적 휘문고와의 경기에서 나홀로 3타점을 기록한 주장 신진호의 활약에 힘입어 5-3으로 승리했다. 화순고는 2-2로 맞선 5회 김선현의 적시타와 신진호의 희생플라이로 4-2까지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동성고는 청소년 국가대표 유경국의 호투에 힘입어 부산고를 6-1로 제압했다.

1회 선취점을 뽑아낸 동성고는 2회와 6회 문우람과 채수웅의 솔로 홈런으로 2점을 보태는 등 활발한 공격으로 부산고 마운드를 공략했다. 타선의 지원을 받은 유경국은 6이닝동안 3피안타 3사사구 무실점의 투구로 승리투수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

빛고을CC 골프연습장 개장 한달만에 회원 1천명

광주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CC골프연습장의 등록 회원이 한 달만에 1천명을 돌파했다. 이 연습장과 내년 3월 개장 예정인 9홀 규모의 골프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 전용 복합문화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하 노인타운)에 매년 2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도시공사 관계자는 19일 “골프연습장 개설 한 달만에 1천명의 회원을 확보함으로써 일단 골프연습장에서만 연 15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측은 일단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확보했으며 회원을 더욱 늘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 초 골프장이 개장해 본격 운영에 들어가야 손익분기점을 따져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투자 비용이 많아 초기 몇년간은 약속한 지원비를 모두 감당하기는 버거울 듯 하다”고 내다봤다.

개장 한 달 만에 이용 인원이 8만 명을 넘어서고, 등록회원은 3만 명을 웃돌고 있는 노인타운의 재정은 사실상 시도시공사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공사측도 6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골프연습장이나 골프장에서 적정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전반적인 재정압박에 시달릴 수 있어 골프연습장의 회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또 향후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통편의, 최첨단시설 설치, 친환경적인 골프장 설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용 인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75타석 규모의 빛고을CC골프연습장은 지난달 18일 개장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